

주말마다 신나는 우리민속공연

KOREAN FOLK PERFORMANCE FOR VISITORS



우리민속 한미당

함께 누리는 문화 행복한 대한민국

Korean Folk Performance
for Visitors

찾아오시는 길

지하철 1호선: 시청역 4번 출구에서 마을버스 11번 이용
3호선: 경복궁역 5번 출구, 안국역 1번 출구에서 도보로 15분
5호선: 광화문역 2번 출구에서 마을버스 11번 이용

버 스 광화문 세종로 일대 버스정류장(도보로 15분)

주 차 경복궁 주차장 이용

주 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삼청로 37 국립민속박물관(110-820)

The National Folk Museum of Korea, Samcheongro 37, Jongno-gu, Seoul 110-820, Korea

전 화 02-3704-3114 **홈페이지** www.nfm.go.kr



이용안내

개관 및 관람 시간

03~05월	09:00~18:00	17:00까지 입장
06~08월	09:00~18:30	17:30까지 입장
09~10월	09:00~18:00	17:00까지 입장
11~02월	09:00~17:00	16:00까지 입장
05~08월 주말·공휴일	09:00~19:00	18:00까지 입장
야간개장 매달 마지막 수요일	09:00~21:00	20:00까지 입장

휴관일 매주 화요일 **입장료 무료**

※공연접수 공고는 4~5월과 9~10월에 박물관 홈페이지를 통해 하고 있습니다.



08

AUGUST 2015

토요상설공연 Saturday Performances in August
2015년 8월 매주 토요일 오후 3시, 국립민속박물관 대강당

국립민속박물관
The National Folk Museum of Korea

8월 토요일상설공연

Saturday Performances in August, Every Saturday 3:00pm, Museum Auditorium

2015년 8월 매주 토요일, 오후 3시, 국립민속박물관 대강당

우리민속
함께 누리는 문화 행복한 대한민국
Korean Folk Performance
for Visitors
한미당



제906회
고보석의 거문고 팔도유람

Geomungo Paldooyuram by Go Boseok

08. 01.



제907회
김태호의 전통춤
‘숙이고, 제치고, 잔걸음으로...’

Kim Taeho's Traditional Dance
"Bend Forward, Bend Backward, With Narrow Steps"

08. 08.



제908회
노학순의 광복70주년 기념 ‘해방가’

"Song of Liberation" by Noh Haksun in Commemoration of
70th Anniversary of Korea's Liberation

08. 15.



제909회
어울림국악관현악단과 함께하는
‘어울어진 국악여행’

"Harmonized Gugak Journey" with Eoulim Gugak Orchestra

08. 22.



제910회
전미경의 해설과 함께
서도산타령의 재발견

Re-discovery of Seodo Santaryeong with Jeon Migyeong's Interpretation

08. 29.

※공연일자는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The above schedules are subject to change without prior notice.

※공연료는 무료입니다. Free Admission

우리민속 08 AUGUST 2015
한미당



고보석의 거문고 팔도유람

Geomungo Paldoyuram by Go Boseok

2015. 08. 01. Saturday(토) 3:00pm

국립민속박물관 강당 Museum Auditorium



공연내용 Performance Description

이번 공연은 젊은 연주자 고보석이 거문고연주와 민속음악을 선보인다.

첫 무대는 거문고 산조로 기악 독주 형태의 민속음악으로, 거문고 산조의 양대 산맥으로 꼽히는 <신쾌동류 거문고산조>와 <한갑득류 거문고산조>를 모두 연주한다. 특히 한갑득류 거문고산조는 구수한 산조 바탕 위에 단아한 장구춤을 곁들여 보여준다.

이어서 <거문고 팔도유람>은 애창 민요를 두루 엮은 곡들로 거문고의 흥겨운 반주로 협연한다. 강원도(정선아라리, 산 염불), 경기도(청춘가, 창부타령), 경상도(밀양아리랑), 평안도(긴 아라리), 충청도(천안삼거리), 전라도(흥타령), 함경도(신고산 타령)등 조선팔도의 민요를 사계절의 변화에 따라 유람하듯 흥과 멋으로 공연의 대미를 장식한다.

Go Boseok, a young geomungo(black zither) player with National Gugak Center presents geomungo performance and Korean folk music pieces.

Representative geomungo sanjo(instrumental solo) pieces, "Geomungo sanjo of Shin Kwaedong school" and "Geomungo sanjo of Han Gapdeuk school" will lift the curtain. The latter, in particular, is accompanied by elegant janggu(hourglass shaped drum) dance performance.

What follows is "Geomungo Paldoyuram" made up of popular folk songs from 8 different provinces of Korea. These songs re-arranged in accordance with seasonal changes will make the audience feel like they're sightseeing throughout entire Korean peninsula from Gangwondo(Jeongseon arari, San yeombul)province, Gyeonggido(Cheongchunga, Changbu taryeong)province, Gyeongsangdo(Milyang arirang)province, Pyeongando(Gin arari)province, Chungcheongdo(Cheonansamgeori)province, Jeollado(Heung taryeong) province to Hamgyeongdo(Singosan taryeong)province.



공연순서 PROGRAM

- 01 신쾌동류 거문고 산조 Geomungo Sanjo of Shin Kwaedong School
- 02 한갑득류 거문고 춤산조 Geomungo Chum Sanjo of Han Gapdeuk School
- 03 거문고 팔도유람 Geomungo Paldoyuram



대표 고보석(국립국악원 정악단 부수석)

연출 박정근

음향 옥성창

출연 대금-김선호, 민요-채수현,

무용-오정은, 김온정, 해설-최상열

김태호의 전통춤 '숙이고, 제치고, 잔걸음으로...'

Kim Taeho's Traditional Dance "Bend Forward, Bend Backward, With Narrow Steps"

2015. 08. 08. Saturday(토) 3:00pm

국립민속박물관 강당 Museum Auditorium



공연내용 Performance Description

이번 공연은 무용가 김태호가 한국 전통무용의 맥을 잇고 그동안 사사받은 작품들을 보여주는 무대이다.

김태호는 한국 전통무용가故임이조 선생과 이매방 선생을 사사한 바, 이번 공연에서는 임이조 선생의 유작 한량무, 교방살풀이춤, 입춤과 인간문화재 이매방 선생의 장고춤, 무당춤을 선보여 무용계 두 거목의 작품을 비교하며 감상할 수 있다.

이와 더불어 영남의 대표적인 춤인 진주검무와 탈춤 '가산오광대'를 통해 관객들로 하여금 다양한 춤을 접할 수 있도록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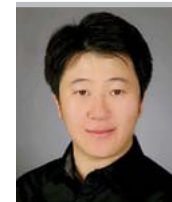
수도권에서 공연예술로 정착되어 세련미를 더한 춤과, 지방에서 전승되어 토속적인 맛을 지닌 춤을 한 무대에서 접할 수 있는 뜻 깊은 시간이 될 것이다.

Kim Taeho, who is carrying on the tradition of Korean dance, performs various Korean traditional dance pieces that he has studied under his maters.

As one of pupils of renowned Korean traditional dance masters, the late Yim Yijo and Yi Maebang, Kim presents Hallyangmu, Gyobang Salpurichum and Ipchum that Yim Yijo's posthumous works. Kim will also perform Janggochum(hourglass shaped drum dance) and Mudangchum(shaman dance) of Yi Maebang, designated living human treasure. The audience will be given an opportunity to appreciate and compare two great masters' works. What follows are representative dances of Yeongnam region: Jinju geommu(sword dance) and Gasan Ogwangdae(mask dance drama). This program will offer a rare chance to enjoy two different dances from the capital region featuring its sophistication as performing art and from varied provinces having their own distinctive localities.

공연순서 PROGRAM

- 01 가산오광대 할미춤 Gasan Ogwangdae Halmichum
- 02 교방살풀이춤 Gyobang Salpurichum
- 03 진주검무 Jinju Geommu
- 04 장고춤 Janggochum
- 05 태평무 Taepyeongmu
- 06 무당춤 Mudangchum
- 07 한량무 Hallyangmu



대표 김태호(중요무형문화재 제73호 가산오광대 이수자)

출연 고유미, 김한나, 방학래,

안우희, 오정희

노학순의 광복70주년 기념 '해방가'

"Song of Liberation" by Noh Haksun in Commemoration of
70th Anniversary of Korea's Liberation

2015. 08. 15. Saturday(토) 3:00pm

국립민속박물관 강당 Museum Auditorium



공연내용 Performance Description

이번 공연은 서울시 무형문화재 제37호 전수교육조교 노학순과 제자들인 경토리민요단이 준비한 '해방가'라는 작품으로 광복 전후의 우리 민족의 애환을 기억하자는 의미에서 본 공연을 준비하였다. 첫 무대 회심곡은 부모님의 만수무강을 기원하는 '효'에 대한 내용을 군무의 화려함으로 꾸몄다. 이어서 동북민요는 강원도 지방의 소리와 황해도 지방의 소리를 들려준다. 민요와 함께 다듬이, 키, 물레, 물항아리, 빨래판 등 소품을 곁들여 옛 정취를 느낄 수 있도록 하였다. 경기민요메들리는 많이 알려진 민요를 다양하게 엮어 관객과 함께 한바탕 어우러질 수 있는 무대를 마련한다. 마지막으로 우리 민족의 대표적인 민요 아리랑과 나라의 발전을 기원하는 경북궁타령으로 공연의 대미를 장식한다.

In commemoration of 70th anniversary of the nation's liberation, Noh Haksun who is designated intangible heritage No. 37 by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and 'Gyeongtori Folksongs Troupe', a group made up of Noh's pupils organize a stage in the sense of remembering the joys and sorrows of the Koreans.

At first, "Hoesimgok" emphasizing the filial piety towards the parents and hoping for their longevity will be displayed along with group choreography. What follows are North East folk songs collected from Gangwondo and Hwanghaedo provinces. In this stage, performers using various items such as, dadeumi(wooden pounding sticks), mulae(spining wheel), water jar, and winnowing basket bring back emotional memories from the past. Folksongs Medley consisting popular folksongs collected from Gyeonggi province, will be presented in sequence. Gyeongbokgung taryeong wishing for the nation's prosperity and Korea's the most representative folk song Arirang will embellish the finale.

공연순서 PROGRAM

- 01 회심곡(소릿조) Hoesimgok(Soritjo)
- 02 동북민요메들리(한오백년, 강원도아리랑, 신고산타령, 궁초댕기)
North East Folksongs Medley (Han Obaeknyeon, Gangwondo Arirang, Singosan taryeong, Gungchodaenggi)
- 03 육칠월(국문 뒷풀이~육칠월) June and July
- 04 민요메들리(노랫가락, 태평가, 양산도, 뱃노래, 잣은 뱃노래)
Folksongs Medley(Noraet garak, Taepyeongga, Yangsando, Baet norae, Jajeun Baet norae)
- 05 경기산타령(앞산타령, 뒷산타령, 잣은 산타령)
Gyeonggi Santaryeong(Apsan taryeong, Dwitsan taryeong, Jajeunsan taryeong)
- 06 해방가(내레이션, 아리랑, 해방가, 경북궁타령)
Song of Liberation(Narration, Arirang, Song of Liberation, Gyeongbokgung taryeong)



대표 노학순 (서울시 무형문화재 제37호 재담소리 전수교육조교)

사회 서한범(한국전통음악학회 회장)

출연 노학순, 김종협, 홍덕표, 홍재진, 정병희, 박수경, 맹창희, 황미자, 장아라, 안창숙, 윤세자, 장자희, 강경애, 김미희, 강혜숙, 김상숙, 김정엽, 이명순, 이귀순,

정글라라, 김철순, 최봉규, 오화령, 김삼옥, 박서현, 윤수화, 박정선, 이무성(영상),

반주단 박영진(장구), 임관하(해금), 강용묵(피리)

어울림국악관현악단과 함께 하는 '어우러진 국악여행'

"Harmonized Gugak Journey" with Eoulim Gugak Orchestra

2015. 08. 22. Saturday(토) 3:00pm

국립민속박물관 강당 Museum Auditorium



공연내용 Performance Description

이번 공연은 어울림국악관현악단이 러시아민요, 판소리, 설장구, 소프라노 등 다채로운 음악 공연을 준비하였다.

첫 무대는 동서양의 국경을 넘는다는 의미를 담아 국악기로 편곡한 곡인 '프론티어'를 선보인다. 이어서 우리나라에서 '백만 송이 장미'로 잘 알려진 러시아 라트비아의 가요 '마리나가 준 소녀의 인생'을 해금의 선율과 국악관현악으로 연주한다. 또한 우리 판소리 춘향가 대목 중 춘향이가 옥 중에서 낭군을 그리며 애절한 마음을 표현하는 '쑥대머리'를 들려주고, 활기차고 흥겨운 가락이 어우러진 선율로 그 의미를 재현한 곡 축제, 해금의 아름다운 선율에 꽃향기를 곳곳에 전해주는 해금독주, 농악의 판굿 중 장구잡이가 춤 솜씨를 보여주는 설장구 합주, 서정적이면서도 대중적 공감을 이끌어 낼 수 있는 '아름다운 나라'를 소프라노와 함께 연주하며 공연을 마무리한다.

Eoulim Gugak Orchestra presents various musical genres from Russian folksongs, Korean pansori and seoljangu to Western sopranos.

"Frontier" will lift the curtain. This song implying 'crossing borders between east and west' is arranged a piece for Korean traditional musical instruments.

A popular song of Latvia entitled "Marinya gave the girl life" which is well known as "Million Roses" in Korea will be presented with haegeum and gugak orchestra accompaniment. "Ssukdaemeori(Disheveled Hair)" from pansori Chunhyangga depicting how Chunhyang misses her lover Lee Mongryong even if she were put in jail, "Festival" featuring its dynamic rhythms and merrymaking sounds, "Haegeum solo" describing floral scent with beautiful melody, "Seoljangu ensemble" from Nongak Pangut showing the jangu player's energetic dance movement will be followed in sequence. A lyrical song, "Beautiful Country" will finalize the program. This particular piece reinterpreted by adding sophisticated contemporary tune along with a soprano voice might resonates well with today's public.

공연순서 PROGRAM

- 01 국악관현악 'Frontier' Gugak Orchestra "Frontier"
- 02 국악관현악으로 듣는 러시아민요 '백만송이 장미' Russian Folksong "Million Roses"
- 03 국악관현악 '쑥대머리' Gugak Orchestra "Ssukdaemeori(Disheveled Hair)"
- 04 국악관현악 '축제' Gugak Orchestra "Festival"
- 05 해금독주 'Small flower near by Railroad' Haegeum Solo "Small Flower near by Railroad"
- 06 설장구 합주 Seoljangu Ensemble
- 07 소프라노와 함께하는 '아름다운 나라' "Beautiful Country" with Soprano



대표 윤명원(단국대 국악과 교수)
출연 어울림국악관현악단

전미경의 해설과 함께 서도산타령의 재발견

Re-discovery of Seodo Santaryeong with Jeon Migyeong's Interpretation

2015. 08. 29. Saturday(토) 3:00pm

국립민속박물관 강당 Museum Auditorium



공연내용 Performance Description

이번 공연은 전통을 기반으로 새롭게 반주음악을 곁들여 한국적이면서도 다양한 색깔로 서도산타령을 선보인다.

서도산타령은 중요무형문화재 29호 서도소리 중 서서 부르는 입창의 형식으로 평안도와 황해도의 전통 성악곡이다.

이번 무대는 서도소리의 대중화를 위하여 반주음악에 화성을 넣어 편곡한 곡들로 바이올린, 신디사이저, 장구, 대금, 해금 및 특수 악기를 가미하여 서도산타령을 재창작하여 새로운 맛을 느끼도록 하였다. 이번 공연은 전통 서도산타령과 서도산타령을 연상하여 만든 창작 실내악곡과 전통 서도산타령의 음악기법을 다양하게 응용한 음악을 준비하였다.

오랜 기간 연구와 창작으로 만든 음악들로 관객들이 쉽고 재밌게 이해할 수 있도록 이야기 형식의 해설과 함께 공연된다.

This program stages Seodo Santaryeong reinterpreted with newly composed instrumental accompaniment.

Seodo Santaryeong designated important intangible heritage No.29 is a traditional vocal music genre of Pyeongando and Hwanghaedo provinces featuring its standing performance style called Ipchang.

In order to revitalize Seodo sori, Seodo Santaryeong is re-written by using various musical instruments such as violin, synthesizer, janggu(hourglass-shaped drum), daegeum(horizontal bamboo flute), haegeum(Korean fiddle) and etc. to create instrumental accompaniments. This program consists of newly composed chamber music pieces by Sola chamber orchestra and other traditional songs using compositional techniques different from those of adopted by Seodo Santaryeong. Sola chamber orchestra will present music pieces created over a long-term study for the purpose of preservation and popularization of Seodo Santaryeong with story-telling style commentary to enhance audience understanding.

공연순서 PROGRAM

- 01 서도산타령 중 초목이 "Chomogi" in Seodo Santaryeong
- 02 솔아 창작곡 일출 Sola's New Composition "Sun Rise"
- 03 서도산타령 중 놀랑 "Nollyang" in Seodo Santaryeong
- 04 솔아 창작곡 정오 Sola's New Composition "Noon"
- 05 서도산타령 중 뒷산타령 "Dwitsantaryeong" in Seodo Santaryeong
- 06 솔아 창작곡 노을 Sola's New Composition "Sun Set"
- 07 헝가리 무곡으로 즐기는 서도산타령 중경발림 "Junggyeongballim" of Seodo Santaryeong in Hungarian dance music tune
- 07 도드리 도드리 양천도드리 Dodeuri Dodeuri Yangcheon Dodeuri



대표 전미경 (사)솔아서도산타령 보존회 대표)

출연 전미경(소리), 박상준(장구), 정다은(대금), 윤희경(해금), 임미연(신디사이저), 김수진(바이올린), 안선영(소리), 김옥례(소리)